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7월 19일(주일) 제1058호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7월 27일~8월 1일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7월 29일 저녁 7시30분 전 캠퍼스에서 '추모예배'



하용조 목사 소전 4주기(8월 2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온누리교회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억하기로 했다.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새벽예배에 가면 설교하는 하용조 목사를 만날 수 있다. 하용조 목사 기념주간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영상으로 상영한다.

7월 29일 오전에는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식이 거행된다. 하 목사 가족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하용조 목사 소전 4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작지만 아름답다”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과 김포M센터의 인연

“너의 크논 뿌레아끄리 여응찌의 꾸로 사따이모이(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에멘(아멘).”

30여 명의 캄보디아 청년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찬양은 마치 이 땅에서 드리는 천국예배 같았다. 아니 천국예배였다. 이마로 흘러내리는 땀이 캄보디아 청년들의 열정을 대변하는 것 같다. 타국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들의 예배는 그 어떤 예배보다 간절하고 애뜻했다. 그 모습을 본 한국인 봉사자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는 작지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포M센터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매월 둘째 주일 캄보디아 청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믿음다락방 성도들.

지난 주일(12일) 김포시 양촌읍 양곡프라자 703호 부천 온누리교회 소속 김포M센터가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서 매주일 캄보디아 청년 30여 명이 예배를 드린다.

김포M센터가 생긴 것은 4년 전이다. 당시 부천 온누리교회 이경복 집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인 직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아타게 찾고 있었다. 무수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을 수 없었다. 당시 김포 지역에는 외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군데도 없었다. 결국 그는 양곡동 인근 하늘바람교회의 장소를 빌려 네팔 청년 5명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김포M센터의 시작이다.

네팔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리랑카어 예배, 캄보디아어 예배로 바뀌었다. 지금은 캄보디아어 예배만 드리고 있다.

김포공동체와의 인연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3년 전 김포공동체 순원이던 김지에 목사가 김포M센터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인연 덕분에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이 올해부터 김포M센터를 섬기고 있다. 이흥두 다락방장과 1~4순 성도들이 매월 둘째 주일에 김포M센터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식사를 대접한다. 이정선 집사(믿음 3순)의 인도로 매주 1회씩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흥두 다락방장의 아내인 유혜정 집사는 섬김이 마냥 즐겁다고 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거라고는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달에 한번 섬기는 것뿐이에요. 다락방 식구들과 캄보디아 청년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에요.”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의 김포M센터 사역은

주일 오전에 시작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부 찬양팀을 섬기는 유 집사는 토요일 저녁부터 정신했다. 캄보디아 청년들을 위한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일에는 새벽 4시 50분에 집을 나선다.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 그녀의 마음에 기쁨이 따랐겠다.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찬양 인도, 대표기도, 통역 등 예배의 모든 순서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직접 한다.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곧바로 성경공부를 한다. 오후에는 한국어 교육도 받는다.

그 영향력이 캄보디아까지

김포공동체뿐만 아니라 부천 온누리교회와 한강공동체도 김포M센터를 돕고 있다. 크고 작은

섬김은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 영향력이 캄보디아까지 이르고 있다.

한강공동체는 여름 아웃리치 때마다 교회를 방문해 시설을 보수하고 정기적으로 캄보디아 청년들과의 운동회, 아웃팅 등 교제에 힘쓰고 있다.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캄보디아로 파송 받은 한 선교사는 김포M센터에서 만났던 형제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모아 현지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지난해 여름 아웃리치 때에는 프놈펜왕립대학 한국관에서 김포M센터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한 집회도 개최했다. 올해도 부천 온누리교회는 캄보디아에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아웃리치를 간다.

이경복 집사(부천 온누리교회)는 “내년에 김포M센터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는 형제들을 모아 본국에서 찬양전도집회를 열 계획 중”이라며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다.

■ 간증



/ 이흥두 다락방장 부부(믿음다락방)

그날을 꿈꾸며

2014년, 김포M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지에 목사가 내가 속한 믿음다락방 2순에 왔다. 함께 순모임을 하게 되었다. 그분은 3년 전부터 김포M센터에서 사역하고 계셨다. 김지에 목사를 통해 김포M센터와 인연이 닿았다. 그곳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김지에 목사는 직장도 포기하고, 오직 캄보디아 청년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고 있었다. 열

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형제들을 섬기느라 일주일 내내 김포M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헌신한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음다락방 2순 자매들이 김포M센터를 방문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 기부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믿음다락방의 김포M센터 섬김이 시작되었다.

올해부터 다락방장의 소명을 받은 나는 다락방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회선교 사역지로 김포M센터가 어떠냐고 순장과 순원들에게 물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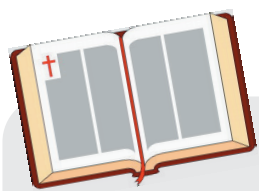
김포공동체 믿음다락방은 31가정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23가정이 매월 김포M센터를 섬긴다. 매주 1회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이정선 집사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순모임과 다락방 방문은 매월 둘째 주에 음식봉사로 섬기고 있다.

우리가 직접 현지에 나가 선교는 못하더라도 캄보디아 형제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로 인해 가정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일들을 통해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믿음다락방 가족들은 그날을 꿈꾸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캄보디아 형제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찬양과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캄보디아 형제들이 김포M센터에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 사역에 개인이 아니라 믿음다락방 식구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참 고맙다. 김포M센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주일강단



이기원 목사

기쁨의 비결

요한복음 15:1~11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을 때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참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오직 그분 뿐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와 없을 때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살전 1:6).

리처드 포스터는 기쁨은 마치 발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거짓 기쁨을 추구합니다. 거짓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들로 나를 채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고갈됩니다. 거짓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관계의 어려움도 생깁니다.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기쁨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기쁨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용량을 늘리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가지를 쳐야 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2절).

포도나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자체는 불품이 없습니다. 포도가 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영양분이 열매로 가게 하려고 포도나무 가지를 쳐주는 것입니다. 기쁨도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풍성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줘야 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제거해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를 치십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시 119:9).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거함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심으로도 가지를 치십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히 12:11).

징계와 고통, 환란을 겪을 때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징계를 통해서 가지를 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4절).

예수님은 기쁨이 없는 가나안 나사렛에서 사

역하셨습니다. 기쁨이 없는 죄인들,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고 주님의 뜻과 생명과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7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순종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내 뜻을 추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요 16:24).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순종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시 4:7).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배가 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확대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캘커타 수녀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

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기쁨은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랑의 그물입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주는 사람은 더욱 많은 것을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형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 마음은 사랑으로 타오르는 가슴에서 비롯된 가장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그녀 안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땅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환란도 넘쳐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의 용량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히 12:2).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침 뱉음과 좌절과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모든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이겨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안에 계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노래를 부르시며 너로 인해 기뻐하실 것이다”(속 3:17).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획_ 1.온누리교회와 아웃리치 2.아웃리치 현황과 주의사항

올 여름 7,606명

국내 178개 팀, 5,306명, 해외 30개국 102개 지역 2,300명
국내는 충청도, 해외는 아시아 ... 대학청년부 으뜸, 차세대도 활발

올 여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현황이 집계됐다. 국내 아웃리치는 178개 팀 5,306명, 해외 아웃리치는 30개국 102개 지역으로 2,300명이 간다. 총 7,606명이 참가한다(7월 15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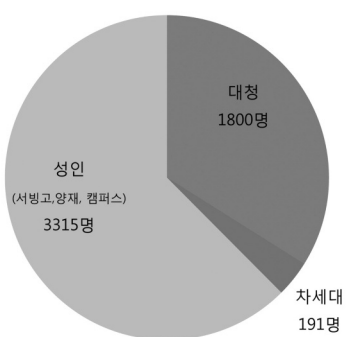
국내 아웃리치 규모가 크다. 무려 5,306명이 참가한다. 국내 10개 캠퍼스 중에서는 양재 온누리교회가 가장 활발하다. 20개 공동체에서 1,684명이 아웃리치를 간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14개 공동체에서 1,193명이 참가한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참가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캠퍼스에서는 25개 팀 438명이 국내 아웃리치를 간다. 캠퍼스 중에서는 남양주가 가장 활발하다. 8개 팀을 꾸렸다. 이어 강동이 6개 팀, 부천과 인천이 각각 5개 팀, 평택이 1개 팀을 꾸렸다(대전 미취합 제외).

대학청년부 아웃리치 열기는 성인공동체보다 더 뜨겁다. 10개 공동체에서 84개 팀이 아웃리치를 간다. 참가인원은 1,800명이다. 아웃리치 일정도 성인공동체보다 길다. 성인공동체의 경우 2박 3일 일정이 가장 많은데 대학청년부는 3박4일 일정이 가장 많다. 대학부 허브공동체는 가장 짧은 일정이 5박6일이다.

차세대 아웃리치도 만만치 않다. 8개 팀 191명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어린이캠프와 여름성경

국내 아웃리치 참가인원



국내 아웃리치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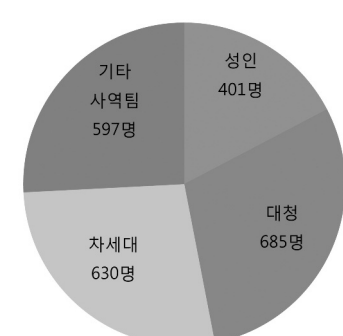
와전라도는 각각 29개 팀이다. 마을 벽화 그리기, 교회 시설 개보수, 마을잔치, 이마용봉사, 여름성경학교 등의 사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청소년 영어캠프를 하는 팀도 있다.

해외 아웃리치 아시아로 치중 ... 전체 팀 92% 성인공동체보다 대청, 차세대가 더 많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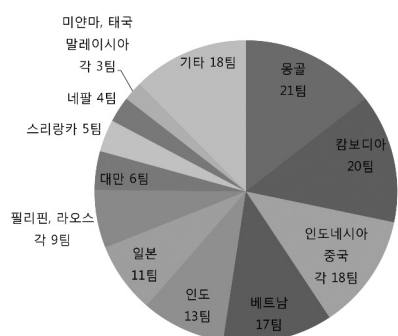
올해 해외 아웃리치는 아시아 지역으로 치중됐다. 2000선교본부에 따르면 30개국 102개 지역으로 2,300여 명이 아웃리치를 가는데 그중 92%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대학청년들이 성인공동체보다 해외 아웃리치를 더 많이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인공동체에서는 401명이 해외 아웃리치를 가는데 대학청년부에서는 685명이 간다. 차세대도 630명이 간다.

올해 온누리교회 해외 아웃리치팀이 가장 많이 가는 대륙은 동남아시아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등 15개국으로 113개 팀이 떠난다.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많이 가는 대륙은 동북아시아다. 일본, 중국, 몽골로 50개 팀이 간다. 전체 팀의 28%다. 기타 대륙으로는 유라시아(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부랴트공화국)대륙으로 4개 팀, 아프리카(세네갈, 코트디부아르)와 중남

해외 아웃리치 참가인원



해외 아웃리치 나라별 현황



학교가 주요 사역이다.

올해 온누리교회 국내 아웃리치팀이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은 충청도다. 35개 팀이 충청도 땅을 밟는다. 경상도는 34개 팀, 강원도는 32개 팀, 경기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아웃리치를 위하여 목사가 드리는 몇 가지 당부

아웃리치는 나의 경험을 쌓기 위해 가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도권을 내어주어야 한다. 팀원들과 연합해 선교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웃리치다. 아웃리치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개인 영성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것은 선교지에 대한 이해와 팀원들에 대한 배려도 포함된다. 아웃리치를 갈 때는 장기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날 때 마음과 비종이 같아야 한다.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개인의 영성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선교지에서는 아웃리치 팀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셋째, 선교지에서는 아웃리치팀을 기다린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지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차세대는 선교지를 많이 보고, 느끼고 오는 것이 좋다. 그곳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뛰노는 경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스테프들이 동행해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다섯째, 청년들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다. 다만 잘하는 사역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웃리치 현장에서 젊은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돕는 것이 좋다.

여섯째, 성인들은 지금까지 아웃리치 경험들

아웃리치 시작과 끝은 말씀과 기도, 개인 영성 점검해야 안전 확보, 개인행동·SNS 자제, 위급상황 발생하면 바로 연락

을 내려놓고 현장에 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신앙과 현지의 신앙은 다르다. 문화와 성격이 정말 다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대면하고 가르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가르치는 마음보다 배우려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아웃리치를 가야 한다.

일곱째, 청년들과 성인들은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 욕심내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과도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게 좋다.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그 땅으로 아웃리치를 간 목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한다.

여덟째, 아웃리치를 다녀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지속적인 기도모임을 유지해야 한다. 중보자로 마땅히 서야 한다. 다음 해에도 그 땅을 또 밟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아홉째, 아웃리치에 대해 평가한다. 현장에서 평가하지 말고 돌아와서 팀원들끼리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장에서 평가를 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 선교지에서 질서는 정말 중요하다. 선교사, 목회자, 리더십 간에 영적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권위가 잘 유지되도록 서로 섬겨야 한다.

열 번째, SNS로 소통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현장 소식을 무분별하게 퍼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도 제목을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내용이 교회 밖으로 퍼질 경우 2,3차 사고가 날 수 있다.

열한 번째, 개인행동은 삼가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리더십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00선교본부로 연락하는 것도 좋다.

*2000선교본부: 02-3215-3250

/ 이재정 목사(2000선교)

아웃리치 간다



CMN 남아시아 B국 아웃리치.

미(나카라과, 브라질, 멕시코)로 각각 3개 팀이 간다. 소수지만 북미와 유럽, 중앙아시아도 각각 1개 팀이 떠난다.

나라별로는 몽골이 가장 많다. 총 21개 팀이 몽골로 아웃리치를 간다. 이어 캄보디아 20개 팀, 인도네시아와 중국 각 18개 팀, 베트남 17개 팀, 일본

11개 팀 순이다. 팔라우, 부랴트공화국, 타지키스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도 아웃리치를 가는 팀이 있다. 의료선교팀 CMN, 예수제자학교

JDS 농어촌선교팀에서도 국내외의 아웃리치를 간다.

/ 정현주, 김미림 기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아웃리치를 위하여 선교사가 드리는 몇 가지 당부

아웃리치는 떠나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모두가 기도로 힘을 모아야 한다. 기도가 아웃리치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아웃리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현지교회를 돕는 유형이다. 둘째,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의 땅을 밟으면서 중보기도 하는 유형이다. 셋째,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유형이다.

본격적인 여름 아웃리치 시즌을 맞아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첫째, 공동체 아웃리치는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중종로 공동체, 강서공동체, 김포공동체, 고양은평공동체, 동작공동체가 모범적으로 아웃리치를 하고 있다. 중종로공동체는 매년 미얀마 인타족을 대상으로 의료선교를 하고 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종족을 10여 년 이상 섬겼다. 인타족은 온 누리교회가 입양한 종족이다. 중종로공동체 소속 성도 중에 의사가 많았는데 그 특성을 아웃리치에 접목시킨 결과다. 강서와 김포공동체도

몽골을 10년 이상 섬겼다. 교회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 선교사들이 요청하는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사실 한 공동체가 오랜 기간 한 나라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다.

전방에 있는 선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후방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지를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든든한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동작공동체는 하니족을, 서빙고공동체는 랍풍족을 섬기고 있다. 선교를 우선시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고양은평공동체는 ‘프론티어 사역’을 하고 있다. 프론티어 사역은 최전방 개척사역을 의미한다. 현지인 집을 방문해 관계를 쌓고, 함께 예배드린다. 현지인 집에서 잠도 잔다. 빈대와 벼룩에 물리기도 하고, 닭들이 뛰어노는 곳에서 자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이 선교지를 위해 더 기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둘째, 아웃리치는 적어도 4-5개월 전부터 참가인원을 확정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현

하나님 마음 발견, 선교 현장 이해하는場 선교사 지시 따라야, 선교지 문화 이해 필수

지 선교사와 공동체 선교사역자는 매년 초부터 사역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는 아웃리치 필요물품과 재정 조달에 있어서 모든 순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셋째, 아웃리치는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돈과 시간만 들고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선교지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품고 와야 한다.

넷째, 아웃리치는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선교현장을 이해해야 기도할 수 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그 현장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준비한 것을 다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얻어오는 아웃리치가 되어야 한다. 아웃리치에 참가한 사람이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웃리치의 또 다른 목적이다.

여섯째, 선교사를 신뢰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아웃리치팀들이 선교지에 대한 민감함을

잘 모르고 선교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선교사가 역할을 잘하든 못하든 선교사를 신뢰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곱째,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잘 모르고 현지인을 도우면 안 된다. 현지인을 돕겠다고 한 행동과 말들이 현지 선교사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선교지에 대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숙지하고 당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아웃리치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솔자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덟째, 아웃리치가 끝난 후에도 다녔던 선교지 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선교사를 감싸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아웃리치다. 설사 선교지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아웃리치를 가는 팀이나 맞이하는 선교사가 서로 승리하는 올 여름 아웃리치가 되기를 소망한다.

/ 김은, 김우 선교사(동아시아 B국)

허브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최윤영 자매
(허브공동체)

이번 여름 아웃리치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나를 다시 열방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나는 스무 살 때 참가한 선교캠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선교캠프에서 하나님은 나를 열방으로 부르셨다. 나는 오랜 시간 아토피를 앓았고, 유학준비를 하면서 어려움과 좌절을 겪었다. 그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다. 인생의 십일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1년 동안 학생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하고 T국으로 파송받았다.

T국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동시에 위험한 사고를 겪고 공동체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아픔도 겪었다.

1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기쁨과 감사

의 고백보다 눈물과 상처, 앞으로의 숙제가 더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악한 몸부림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시작하셨다. 공동체와 리더십들에게 상처를 받은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허브공동체로 이끄셨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공동체에서의 교제를 통해 내 안의 상처들이 하나둘씩 회복되어 갔다. 그리고 이번 여름 필리핀 아웃리치 자리로 나를 이끄셨다. 부족한 나를 팀장으로 세우셨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도착한 필리핀에서 우리 팀은 빈민가에서 사역했다. ‘쓰레기마을’이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쌓인 쓰레기가 단단한 땅을 이루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그 땅 위에 집을 짓고, 아재를 키우기도 했다. 쓰레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우기가 되면 배수시설이 낙후되어 물이 범람했다. 쓰레기 높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후원자들의 섬김과 동역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기 시작했다. 작지만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생계유지가 힘든 가정을 방문해 음식을 전달했다. 장판이 깔려 있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않은 집에는 장판도 깔아주었다. 선교사님이 진행하는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도 했다. 자체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아이들 머리에 있는 이와 벌레를 제거하는 사역도 했다.

적은 수의 팀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사역들도 해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습하고 뜨거운 날씨에 옷이 땀으로 흠뻑 젖고, 화장실 한번 가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쓰레기 썩은 물이 옷과 신발에 튀는 순간조차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빈민가, 쓰레기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주로 인해 다시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시간이었다.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통로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분당A공동체

강원도 아웃리치

윤내문 장로
(분당A공동체)

태풍 ‘찬홈’이 많은 비를 뿌렸다. 오랜 가뭄 중이라 모두가 기다리던 반가운 비였다. 하지만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우리는 염려가 앞섰다. 태풍으로 인해 흑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됐지만 우리의 방문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을 강원도 우천 사랑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제할 시간이 없었다.

분당A공동체는 지난해까지 한 곳을 정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아웃리치를 갔다. 주로 여름철에 국한됐었다.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졌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섬기기로 결정했다. 4군데 교회를 추천받았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 우천 사랑교회를 선택했다.

공동체 식구들과 논의 끝에 다락방을 2개 그룹으로 나눠 한 달에 두 번 최소한 10~15명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섬기기로 했다. 개인 참여보다 가족 단위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지난 12월 분당A공동체가 드디어 강원도 우천 사랑교회로 첫 아웃리치를 갔다. 날씨를 살피느라 잠을 설쳤다는 집사님, 연로하신 부모님

을 모시고 온 집사님, 아이들을 대동하고 온 집사님 등 공동체 식구들 모두에게 이번 아웃리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주일 아침 영동고속도로로는 매우 한산했다. 휴가철이라 막힐 줄 알았는데... 뽕 뚫린 고속도로처럼 강원도 우천 사랑교회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시원하게 뚫린 것 같았다.

두 시간 반 만에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에 소재한 우천 사랑교회에 도착했다. 이 교회는 40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담한 규모다. 1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분당A공동체의 방문으로 이날은 25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찬양과 기도, 설교 등 예배의 모든 순서를 목사님 혼자 맡아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의 방문으로 목사님이 다소 흥분하셨나 보다. 설교에서 힘이 느껴졌다.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모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이날은 사람이 많으니까 신이 난 게 틀림없다.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이다. 우천 사랑교회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해줬다. 사모님이 교회 창립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다. 그 모습이 전하면서 감사했다.

강원도 횡성은 지역적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마음은 단단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적 자원

거룩한 물음과 책임을 가지고 돌아왔다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예배하는 강원도 우천 사랑교회를 찾았다.

부족,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비전과 자신감을 잃어가는 목사님들도 많다고 했다.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울 순 없어, 교회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목사님 내외분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는 아침과 달리 정체됐다. 피곤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에게 차량 정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온누리교회 하나의 순 예배 인원보다 성도가

적게 모이는 교회,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교회,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농어촌교회의 현실일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겁지만 거룩한 물음과 책임을 가지고 돌아왔다.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매주 섬겼으면 좋겠다. 1년이 아니라 2년, 3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이 다른 교회로 확장됐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제주 아웃리치

구유리 자매
(남양주J1 청년부)

아웃리치를 선택할 때마다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들고 싶어 기도했다. 하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결정하곤 했다. 이번 제주도 아웃리치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머릿속에 가득했다.

제주도는 복음화율이 7%밖에 안 되고,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민간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제주도를 가야 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제주도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임했다.

아웃리치를 위한 사전 준비모임에서 한 자매가 버스킹(거리 공연) 형식으로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전도를 하라고 제안했다. 자연스럽게 아웃리치 방향이 문화전도를 통한 가스펠 콘서트로 유입이 잡혔다. 게스트하우스 두 군데와 협재마을 해변에서 찬양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제주

도 현지인들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찬양을 통해 복음이 흘러들어갈길 소망했다. 제주도의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되기를 소망했다.

제주에 도착해 콘서트를 준비하는 틈틈이 마을과 해변을 돌며 땅뵈기를 했다. 제주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거리 청소도 했다. 거리공연에 앞서 제주도 성지순례도 했다. 성지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됐다. 마지막 순례지로 제주 극동방송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전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노인정 사역도 했다. 제주도 할머니들을 만나 매니큐어를 발라드리고 안마도 해드렸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분들의 말벗이 되어 드렸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아웃리치 일정 중에서 가장 기대감을 갖고 준비한 것은 바로 ‘협재 해변 콘서트’였다. 그런데 태풍 ‘찬홈’으로 인해 장소를 협재 해변에서 협재교회로 바뀌어야 했다. 해수욕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라 기대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을 볼 수

선교지 제주도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던 협재교회에서.

있는 기회라고 기대하며 더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는 빗속을 뚫고 주변 상가와 게스트하우스들을 방문해 콘서트를 홍보했다. 비가 많이 왔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CCM가수 나무엔, 남양주 온누리교회 CCM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무대에 섰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관객들에게 거부감 없는 찬양들을 선곡해 불러들었다. 친근하면서 힘 있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사랑을 찬양했다. 너른 해변보다 예배와 찬양으

로 다져진 협재교회 예배당에서의 콘서트가 훨씬 성령 충만했다. 파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협재교회에서 드린 예배를 끝으로 아웃리치를 마무리했다. 99년 동안 협재마을을 지켜온 협재교회와 성도님들, 다음에 꼭 다시 오라며 배웅해 주신 할머니들이 벌써부터 보고 싶다. “온누리교회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값을 갚았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협재교회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CGNTV

태국 아웃리치

김혜림 자매
(제작국 사회선교팀)

CGNTV에 입사하고 처음 가는 직원 아웃리치였다.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태국 아웃리치를 갔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태국 CGNTV 피디님과 팀원들의 배려로 잘 다녀올 수 있었다.

태국 아웃리치 기간 동안 여러 선교사님들을 뵈고 다양한 곳을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중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째, 선교사님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가끔 선교사님들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사실 그때는 마음에 크게 와 닿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남달랐다. 간증을 듣고 내눈으로 사역 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태국에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러웠다.

선교지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CGNTV를 보면서 회복되기를 소망하

면서 위성안테나를 달아드렸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사실 우리가 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곤 그것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아는 선교사님이 없어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심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는 태국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중보기도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부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국 아웃리치 다섯째 날 CGNTV를 사랑하신다는 박재천 선교사님 부부를 뵈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CGNTV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모님의 그 말씀 한 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찔렀다. CGNTV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는 등 제작에 참여하면서 기도가 부족했었다.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말에 기대고 있었다. 다른 영상을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양이 줄었다.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영상을 만들 것이다. CGNTV에서 방송하는 영상들은 선교사님들의 감동함을 채워주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선교사님들과 시청자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말씀

보고, 느낀 선교현장에서



선교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아웃리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야겠다.

셋째, 리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CGNTV는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세워졌다. CGNTV는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영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도 하용조 목사님께서 복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모두가 리더로 살기를 원하실 것 같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리더든지, 가정에서 리더든지 말이다. 나도 누군가의

삶에 멘토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 지혜롭게 사역하고 싶다. 아니 해나갈 것이고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하나 구하면서 해나가야겠다.

사실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 몸소 느낀 아웃리치였다.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의 뿌리 ‘서울’

살아 숨 쉬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만나다

본격적으로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됐지만 갈 사정이 안 되는 성도들도 있다. 아웃리치 현장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 여름을 뜻깊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같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뜻깊은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숨어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어떨까.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서울에 숨어 있는 기독교 유적지만 해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살아 숨 쉬고 있는 서울의 기독교 역사를 만났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서울은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의 뿌리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될 때 서울(한양)은 조선의 수도였다. 당연히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서울을 기점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미국 북감리회 소속 매클레이가 최초로 서울에 온 선교사다. 그는 고종으로부터 학교와 병원 사업을 허가 받았다. 비슷한 시기 미국 북장로회 소속 알렌 선교사도 서울에 왔다. 그는 의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최초의 선교사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부부가 인천에 도착한 이후 미국 북감리회와 북장로회는 정동에 선교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조선 선교를 시작했다.

성결교회에서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일본 성서학원을 졸업한 김상준과 정빈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종로 염곡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우고 전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교파나 교회를 조직하지 않았다. 그러다 1921년부터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조직을 갖추었다. 이렇듯 서울은 다양한 교파가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 곳곳에 기독교 유적지가 많다. 뿌리 깊은 교회도 많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서울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김양선 목사의 눈물로 세운 ‘한국기독교박물관’

7호선 송실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오르막길이 나온다. 그 길을 따라 걷다보면 왼편에 ‘한국기독교박물관’ 외관이 보인다. 한국기독교 박물관은 3층으로 된 건물이다. 1층은 한국기독교 역사실, 2층은 송실역사실, 근대화와 민족운동사, 3층은 고고미술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설립된 데에는 매산 김양선 목사의 역할이 컸다. 그의 눈물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양선 목사는 신성중학교, 송실전문학교,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수학했다. 송실전문학교 재학 중에 비밀결사대 ‘청구회’에 가입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평양지역 학생시위를 주도하다 옥고를 치렀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다.



송실대입구역 가까이 위치한 한국기독교박물관.

그는 한국 교회사와 민족문화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 교회사 자료를 모으고, 고고유물을 수집·정리했다.

김양선 목사의 집안은 한국기독교를 표징하는 뿌리 깊은 신앙의 가정이다. 외할아버지 백흥준이 최초의 한글성경 번역 사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온 식구들이 전도, 교회개척, 교육사업, 기독교사 연구에 이르기까지 민족 복음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양선 목사는 해방 직후 북한에 있던 기독교 유물을 남한으로 옮겨 1948년 남산에 기독교 박물관을 설립했다. 남북한을 오가며 기독교 유물을 옮기는 중 부인과 딸을 잃었다. 기독교박물관은 김양선 목사의 목숨을 건 모험과 부인과 딸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나서야 설립될 수 있었다.

1967년 4월, 가족의 생명을 대가로 지켜온 3600여 점의 기독교 유물을 모으고 송실대학교에 기증했다. 그 유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한국기독교박물관이다.

한국기독교박물관 1층은 ‘한국기독교역사실’이다. 한국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기독교 일과 경교에 대한 자료도 있다. 경교는 7세기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당시 당나라와 교류가 있었던 통일신라에 경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토된 경교돌집자, 십자무늬장식, 마리아상이 전시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다.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하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 이것은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

박물관에서 예수성교전서, 마가전복음서언해, 찬성시 등 당시 성경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2층은 ‘송실역사실’이다. 송실대학교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믿음의 선배들이 민족 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3층은 ‘고고미술실’이다. 토기류, 석기류, 금속기류, 유리, 옥제품 등 600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들을 볼 수 있다. 문화발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8월 31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새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

종로에 있는 새문안교회도 가볼만하다. 새문안교회는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로 알려져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서 14명의 한국인과 언더우드 목사, 로스 목사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에 교회신축으로 옛 예배당이 철거되었다. 지금은 예전 모습이 남아 있지 않지만 종탑은 남아있다. 단편적이거나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기념관 3층에 마련된 교회 사료관에서 새문안교회의 역사와 한국교회사에 대한 다양한 문헌 및 사진자료를 볼 수 있다.

정동제일교회도 의미가 있다. 정동제일교회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벤엘교회당’을 세우고 사역을 시작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인들

이 늘어났다. 그러자 기존의 예배당이 비좁아졌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897년 새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바로 정동제일교회다.

정동제일교회 역시 한국기독교역사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사회교육관 5층에 ‘만근기독교역사자료실’이 있다. 그곳에 가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용했던 성찬기, 최병현의 친필원고, 한문성경 등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 배재학당도 아펜젤러 선교사가 터를 닦았다. 1886년 6월 문을 연 학교의 이름을 1887년 고종이 ‘배재학당’이라고 지어줬다. 지금은 동관만 남아있다. 배재학당 시절 유일한 건물이다. 2층짜리 건물인데 지금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에 숨은 기독교 유적지가 많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정동 북장로회 스테이셔너, 연동교회, 아현 감리교회 등 한국기독교사에 중대한 역할을 한 곳들이 정말 많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서울지역 기독교 역사를 만나보자.

찾아가는 길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00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송실대입구역 3번 출구.

새문안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9
정동제일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46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박광규 전도사
(온누리M센터 몽골어예배)

전통적으로 땅을 일구고 살던 한국의 농경사회에서 남편은 하늘이었다. 남자를 최고로 여기는 남성 우월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가 존재해왔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한 남녀차별이나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는 여전하다.

전통적 유목사회인 몽골의 남녀관계는 어떻게? 몽골에도 한국처럼 남성 연장자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를 지켜주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몽골사회의 분위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몽골의 남편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가정보다는 바깥일에 열중한다. 반면 아내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뒷바라지며 교육, 부모 봉양까지 집안의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다.

몽골말로 부인을 ‘에흐네르(ᠡᠬᠡᠨᠡᠷ) XHᠡᠭᠦᠣᠫᠤ’라고 한다. ‘어머니(에흐:ᠡᠬᠡ)’와 ‘이름(네르: XHᠡᠭᠦᠣᠫᠤ)’를 합친 뜻이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고귀하고 고결한 이름이 어머니인 것은 어느 민족이나 비슷한 것

같다.

유목민들은 아내를 ‘어머니 이름’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게다가 ‘에흐’라는 발음은 크고 높다라는 뜻의 ‘이흐(ᠢᠬᠡ)’와 비슷하다. 아내의 또 다른 이름은 ‘크고 높다’이다.

몽골의 ‘여성의 날’

몽골에서 여름을 지내본 사람들은 종종 아름답게 치장한 여성과 부랑아처럼 웃옷을 벗은 채 여성을 따라가는 남성을 봤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연인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한다. 이것은 단순히 치장문제가 아니다.

몽골에서는 자녀가 둘인 경우 아들보다 딸을 대학에 보낸다.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남자는 등짐을 져서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여성은 힘이 없으니 반드시 배워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여성이 집과 양육권을 가진다. 아랑뚱 몽골은 모계 사회 전통을 가졌다. 21세기가 된 오늘날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몽골에는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 바로 ‘여성의 날’이다. 기념일이 많지 않은 몽골에서 여성의 날을 제정해 지키고 있다. 날짜는 3월 8일이다. 이날은 공휴일이지만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성의 날의 가치와 분위기는 큰 명절과 맞먹는다. 여성의 날이 되면 몽골 전체가 시끄러워진다.

여성의 날은 러시아 문화권에 속해있는 나라에

딱 하루 동안만...



전통적으로 모계 중심의 문화를 가진 몽골.

만 있는 날이라고 한다. 이날을 몽골어로 ‘에멕테 추딩 바이르’라고 부른다. 이날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해준다. 여성의 날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화이트데이’와 비슷하지만 이날은 몽골의 국가공휴일이다. 러시아 문화권의 모든 나라가 함께 지키는 국제적 인 행사이자 명절이다. 의미나 규모에서 화이트데이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날 여성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인사도 ‘안녕하세요’에서 ‘국제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로 바뀐다. 어떤 여성이든 못 남성들의 축하를 받고 대접을 받는다. 애 어린 할 것 없이 여성들을

왕비나 공주처럼 대접해준다. 남성들은 마치 종처럼 여성들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면서 극진히 모신다.

이 즐겁고 기쁜 여성의 날이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다수의 몽골 여성들이 ‘여성의 날’이 아닌 평상시에는 가정은 뒷전인 남편들을 대신해 가족을 위해 죽도록 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런 이유에서 여성의 날이 있겠지만 씁쓸과 기쁨이 딱 하루 동안만 주어진다. 그것이 참 안타깝다.



목회칼럼 이찬우 목사(관악금천공동체)

함께 가는 것이 영성이고, 신앙이다

2009년 3월, 당시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운동을 하다가 쓸데없는 승부욕으로 다리뼈가 골절된 적이 있다. 웬만해선 잘 골절되지 않는 대퇴골 뼈가 세 조각났다. 40cm가 넘는 제법 긴 철심으로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한동안 다리를 고정시키고 누워서 병원 생활을 했다. 나름 병원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병문안 오시는 분들이 심심하지 말라고 책을 선물해주셨다. 그 책 중에서 제 목부터 기분 나쁜 책이 있었다. 한 쪽 구석에 처박아놓았던 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고통의 영성>이다.

병원에 있는 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책을 퇴원한 후에 읽기 시작했다. 책 제목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공동체 영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생물학에서 다세포 생물들 안에 있는 개별 세포들은 생존하기 위해 다른 세포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살아있는 세포들은 상처를 입으면 소리를 지르고 생물 전체는 그 소리를 듣는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의학적 정의를 보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 구절이 뜻하는 바를 실제로 경험하게 됐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6개월 정도 목발을 짚고 다녔다. 목발을 땔 때 째쭉 째쭉거리며 한 발 한 발 내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을 보내면서 방금 소개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다. 내가 다리를 째쭉거렸던 이유는 불편한 한 쪽 다리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불편한 한 쪽 다리 때문에 째쭉거렸던 이유는 고통 받는 한 쪽 다리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온 몸의 감각들이 더 긴장하고 온전한 다른 한 쪽 다리에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불편한 한 쪽 다리의 고통을 온 몸이 분담하고 있었다.

‘공동체 영성은 고통의 영성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 고통 받는 지체가 있다면, 부족함이 느껴지는 지체가 있다면, 발달된 신경과 감각으로 그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상실할지

도 모른다.”

쩔쩔거리더라도, 그래서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온 몸의 신경이 긴장해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 여기가 예수님의 핏 값으로 산 교회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영성이고, 신앙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무슨 직분인지가 그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해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사랑과 섬김, 희생과 헌신, 영성과 신앙을 보고 평가하신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터다. 그래서 도태되면 버린다.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회공동체는 다르다. 세상과 완벽하게 달라야만 한다. 고통 받고 신음하는 지체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사랑의 온기를 전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가려는 노력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공동체의

참 모습이다.

고통의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당신의 사랑으로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실 수 있도록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얼마 전 공동체를 섬기게 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저런 모습의 지체들이 있을 것이다. 아직 공동체 식구 전부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지체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성도들의 고통을 사랑으로 분담하고 늦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전 12:25, 개역개정).”

“여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회선교부, 다문화가정 위한 ‘행복드림 콘서트’ 개최

“쭈쭈쭈 쭈쭈 쭈쭈 쭈쭈, 방 자이 꾸어 꾸어 쭈어쭈쭈.”

지난 5일, 경기도 장흥에 위치한 북한산 둘레길 ‘혜세의 정원’에 낮선 언어가 울려 퍼졌다. 베트남어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라는 의미다.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이 경기도 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12가정을 초청해 행복드림 콘서트를 열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다문화가정 2가정도 함께 했다. 이날 행복드림 콘서트는 ‘당신의 가족에게 소중한 행복을 드립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온누리 국악찬양팀과 공중과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로 이름을 알린 이마셸 자매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마셸 자매는 “자신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면서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가정을 향한 굵지 않은 시선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간증은 노래 이상의 큰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 후에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이기훈 목사는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다문화가정은 언어와 문화 차이가 있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사역팀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행복드림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행복드림 콘서트에 초청된 다문화가정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은 문화와 언어 차이뿐 아니라 많은 나이차로 부부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주변인 혹은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채하경 선교사는 “몇 년을 찾아가도 복음을 듣지 않거나 문도 열어주지 않는 남편들도 있다”면서 “다문화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데 행복드림 콘서트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행복드림 콘서트에 참석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고백했다.

“여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차세대 ‘여호수아 캠프’ 시작

서빙고 16개, 양재·도곡 19개, 캠퍼스 37개 부서 참가

차세대 여름캠프가 시작됐다. 차세대 캠프는 지난 4일부터 ‘여호수아 캠프(Joshua Camp)’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8월 16일까지 영역별(예곡, 꿈땅, 파워웨이브) 진행된다. 서빙고 16개, 양재·도곡 19개, 캠퍼스 37개 부서가 참가한다.

올해 차세대 여름캠프에서는 한 단계 발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성경 인물 여호수아를 탐구하고, 소그룹별 활동을 통해 성경도 탐구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번 캠프의 목적이다.

교재를 활용한 게임, 다양한 야외활동

통을 통해 소그룹 나눔 시간에 비중을 더 했다. 차세대와 교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풍성하다.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차세대와 교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서빙고 감남영 간사

(02-3215-3521)

양재 최진현 간사(570-7436)

/ 김미림 기자

복음을 노래하는 청년들, ‘쉐마’ 아세요?

폴투공동체 보컬팀, 찬양대회 대상 수상하기도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노래하고 싶어요”

‘쉐마’는 대학부 폴투공동체 소속 보컬팀이다. 올해 창단된 지 4년 된 아카펠라 찬양팀이다. 매주일 동숭아트센터에서 드리는 대학부 폴투공동체 주일예배 단골 특순팀이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마미 동산교회에서 열린 찬양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배동혁 팀장은 “찬양할 때만큼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진다”면서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기쁨을 노래했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7일에는 화요성령집회에서 특순을 섬겼다. 양재 온누리교회 새신자 등록 7주차 과정 예배, 서빙고 순종강예배, 대학부 수련회 등에서도 특순을 섬겼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서빙고 만남의 잔치

날짜: 2015년 7월 26일(주일) / 시간: 오후 5시 ~ 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시온홀(B2)

대상자: 2015년 5월 17일 ~ 7월 11일까지의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새가족	이진영	동대문중앙	정제영	김명원	박창식	박상현
이명수		황경분	김선희	방희석	유상희	
강유미	강서	김주현			강동원	찬양사역
김경희	김기숙	김미진	무공동체	성복	김미옥	차백호
김수신나	강태욱		김효진B	민선영	김명호	오정은
김보현	김지혜	동작	유지태	김진희		
이성구		정소라		박미혜	이준	특별한초대
채동기	강춘	조은자	서대문		이경아	조정민
윤은혜	박수미	이충근	김민재	양천	박세현	박옥란
박수진		김락선		진정은	윤재규	
이현재	고양은평	박선미	서빙고	유연삼	이경우	한강
진선희	이병삼	최성환	박서연	김명희		신은수
최경옥	윤수경			이창학		전주식
		마포	성동광진	김미자	일산	장태기
		정용모	전재화		송도영	문다니엘
		손소현	서경교		심정연	이동숙
가정사역	광명		정진이	영등포구로	손병수	중종로
우유석	박진재		조하늘	박진기	박진기	이은혜
한희경						
김재민						

진새골 명품가족캠프 참가자 모집

진새골 온누리교회에서 명품가족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진새골 온누리교회 명품가족캠프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3대가 함께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가정에게 대상이다. 장소는 진새골 사랑의 집(경기도 광주)이다. 열린음악회, 가족영화감상, 바비큐파티, 캠프파이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회비는 30만원이다. 5세 이상 자녀를 동반할 경우 5만원이 추가된다.

문의: 02-444-5882, 031-767-277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아웃리치 후기와 사진 받습니다

온누리신문에서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사진을 받고 있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아웃리치 현장 사진, 글을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면 본지에 게재한다. 원고분량은 A4 1장, 글자크기는 10포인트다.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원고 분량: A4 1장, 글자크기 10

내용: 아웃리치 간증 또는 후기, 아웃리치 현장사진, 글쓴이 사진

보내실 곳: onnuriweekly@gmail.com

문의: 02-3215-3196

■ 나는 CGNTV 열혈 시청자

CGNTV는
선교사들의 산소호흡기다

/ 이태현 선교사(아프리카 가나)

나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곳은 무슬림 지역이다. 이곳 사람들 98% 정도가 무슬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사역하는 것은 참 외롭고, 고독하다. 분명 필요한 사역들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있는데 이 한 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곳에서 방영되는 CGNTV는 상상을 초월하는 도움을 준다.

보통 전도집회에 가보면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설교하고, 초청하는데 나는 다른 방법을 써왔다.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CGNTV 프로그램 ‘독수리 5형제’에 이 지역이 소개된 부분을 CD에 담아서 보여줬다. 영화 예수를 볼 때도 별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이 지역이 소개되는 영상이 상영되자 환호성을 질렀다.

“와! 저기 나 아는 동네다. 저기 아는 사람 나왔다.”

그 뒤로 나는 예수 영화와 더불어 CGNTV의 ‘독수리 5형제’ 프로그램을 꼭 본다.

이곳 아이들은 걸음마하기 전부터 모스크에서 코란을 암송하는 것을 배운다.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교육시킬 학교를 세웠는데 1~2년 동안 기독교인 교사가 없었다. 그때 CGNTV가 이곳을 방문했다. CGNTV 프로그램에 나의 상황을 알렸다. 한국에서 기독교인 교사를 구하고 있는 나의 상

황을 접한 봉사단체가 교사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 때부터 매년 두세 명씩 한국의 크리스천 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섬기고 있다. 2013년에는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다.

“CGNTV 독수리 5형제 프로그램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당시 에볼라가 발생해 한국에서 오기로 한 자매가 오지 못했는데 그 자매 대신 캐나다에서 한 자매가 와서 봉사하고 있다. CGNTV를 통해 전 세계 교회가 협력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CGNTV는 비행기의 산소호흡기와 같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산소호흡기 착용법을 설명해준다.

이때 어른이 산소호흡기를 입에다 댄 다음 아이에게 대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됐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CGNTV를 보면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CGNTV는 현지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들에게 산소호흡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가슴 치던 한 선교사가 CGNTV 새벽예배를 보면서 회복되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 있다. 이런 간증을 들 때마다 적박한 땅 일수록 CGNTV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CGNTV가 왜 방송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보인다. CGNTV는 선교사들에게 산소호흡기와 같다.

■ 폴투공동체의 자랑 ‘쉐마팀’



찬양으로 복음 전한다

/ 배동혁 형제(폴투공동체)

2012년 1월, 폴투(Pole2)공동체에 쉐마(Sh'ma)팀이 탄생했다.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신 6:4)’이라는 뜻이다. 쉐마팀은 찬양을 좋아하는 3~4명의 지체들 모임에서 시작했다. 폴투공동체는 보컬팀과 찬양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 특수와 외부 사역을 섬기고 있다.

나는 폴투공동체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쉐마팀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3기 팀장으로 1년 정도 섬겼다. 지난해 11월, 미아 동산교회에서 찬양대회가 열렸다. 멋모르고 준비한 우리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도 그 찬양대회에 초청을 받았다. 양재 온누리교회 새신자 7주차 과정 예배와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종강예배, 대학부 수련회 등에서도 초청을 받았다.

최근에는 화요성령집회에서도 찬양을 했다. 우리팀이 이렇게 큰 무대에 선 것은 처음이었다. 팀원들과 2주 동안 매일 모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

화요성령집회 특수를 준비하면서 겪은 일화가 있다. 화요성령집회 하루 전 날, 우리가 부를 찬양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넣기 위해 18마디 가사를 통 편집했다.

팀원들은 그 동안 알고 있던 익숙한 가사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했다.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유

학생을 붙들고 가사를 바꿨다. 정말 다행스럽게 가사 하나도 틀리지 않고 찬양을 마무리했다. 팀원들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다. 어떤 팀원은 “매일이 은혜”라고 말했다. 어려움과 벽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어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다.

현재 쉐마팀에는 18명이 섬기고 있다. 21살부터 32살까지 청년들이 모여 있다. 전공 분야도 다양하다. 심리학, 회사원, 간호사, 영어강사, 뮤지컬, 실용음악 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올해부터는 오디션 제도를 도입했다. 청계천이나 카페에서 신고식도 치른다.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무대 공포증을 없애려는 것이다. 아직도 무대에 설 때마다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

쉐마팀이 폴투공동체의 부흥을 위한 촉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비전이 같은 사람들이다.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비전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 음악은 세상 음악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귀를 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음악성으로 접근하고, 찬양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로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한다.

■ 프리덤스쿨 수료 간증



슬픔이여 안녕

/ 장영민 성도

프리덤스쿨에 오기 전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 이 슬픈 감정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나님께 질문했다. 나는 울기만 했다.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나누기도 했지만 우울함은 더 깊어졌다. 작은 일에도 절제할 수 없는 분노가 일고, 상대방의 대수롭지 않은 말에 큰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다. 전도사님과 상담하던 중 프리덤스쿨을 소개받았다. 주저했지만 우울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용기를 냈다.

프리덤스쿨이 한 주 한 주 진행될 때마다 나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너무 두려워 켜켜이 묻어두었던 감정의 보따리들을 하나씩 용기 내어 풀어내었다. 나의 우울함과 상처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태에서부터 축복받지 못한 생명체였다. 13살 소녀를 생계전선으로 내몬 아버지께 대한 원망이 분노로 쌓였다. 고단한 청소년기를 겪으며 생긴 상처, 수치심, 두려움이 현재의 나를 낮은 자존감으로 살게 만들었다. 생활고와 화목하지 못한 가정환경이 나를 옥죄었다. 나는 이것을 견고한 진이 아닌 운명이란 생각만 했다.

프리덤스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을 깨닫게 되었다. 제대로 배움을 제공받지 못한 나에게 중보자라고, 가르치는 능력이 가

진 말씀사역자라고 말씀하셨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해 생긴 내 마음속 원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대체해 갔다.

특히 1박2일 수련회를 통해 내면의 모든 고통을 토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솔직히 내면과 직면하는 순간은 아프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쏟아냈을 때 비로소 마음으로 점철된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혼자라고 생각하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아침을 맞는 게 행복하다. 하루하루가 기대된다. 솔직히 현재의 생활은 어제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했기에 두렵지 않다. 이전에는 아픔으로 다가왔던 남편의 말도 아프지 않다. 일터에서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일상의 대화처럼 소통을 잘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나 장영민은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늘 내 마음과 기도 속에 있다

/ 김씨니 선교사(남아시아 J국)

어느덧 7월도 중순이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1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B지역을 다시 방문했다. ‘미션 어드벤처 아웃리치’를 마치고 3개월만의 방문이었다. 이 지역은 남아시아 J국에서도 복음률이 가장 낮고, 가난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몇몇 사역자들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과 여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마을 사역도 하고 있다. 나는 한주 동안 ‘어린이사역’과 ‘아트클래스 워크숍’을 돕기 위해 B지역을 방문했다. 그런데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큰 통증이 느껴졌다. 그 통증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때로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오전과 오후에는 사역자들과 ‘아트클래스 워크숍’을 진행했다. 순간순간 느껴지는 허리통증이 심해졌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역자들의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열의와 기대가 정말 컸다. 그것을 보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부족한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동역해 주

시는 사역자들에게도 큰 빛을 켜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니 허리통증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곳에서 사역할 때는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센터에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이곳은 우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곳도 한국처럼 기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비가 많이 오면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렵다. 장화를 신고, 우의를 입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단비가 이곳을 충분히 적시면 좋겠다. 은혜의 단비도 내렸으면 좋겠다. 나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한다.

앞으로 4개월 동안은 비쁜 일정이 될 것 같다. 순간순간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멀리 있지만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늘 내 마음과 기도 속에 있다. 은혜의 빛을 지고 있는 나는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감사하고 있다.



장로칼럼 육동건 장로

일대일 제자양육의 골든타임

온누리교회는 능동적인 평신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수많은 사역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새롭게 세워지고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와 궤를 같이했다. 온누리교회 부흥의 초석이자, 성장 동력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한마디로 온누리교회의 핵심 DNA라고 불리는 귀한 사역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많은 타교회에도 신선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교회 제자양육 로드맵을 바꾸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올해는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다. 희망찬 미래 또 다른 30년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성인양육을 통해 한국교회 제자양육의 틀이 바뀌었고, 개인의 신앙도 많은 변화와 회복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신앙의 기초가 약해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가정이 너무 많다. 자녀 문제의 99%는 부모에게서 비롯된다고 한다. 주일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이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고 지탱해 주고 있지만 1년 중 고작 52번 있는 주일날로 한정되어 있다.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기초석과 모퉁이들이 세워져야 한다. 자신의 자녀가 성경의 진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라다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이다. 신앙의 모델은 부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다.

가정회복은 에덴동산에서 일그러지고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투영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다.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을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가정을 소생시키는 약 재료가 될 것이다(겔 47:12, 계 22:2).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관계형성이요 생명전달이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친 성도들로부터 기적 같은 고백과 간증을 듣고 싶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어두운 모습이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행복한 간증을 듣고 싶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준비하면서 부모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고 있다는 고백을 듣고 싶다.

어린이는 신앙의 골든타임이다. 온누리교회 미래 30년은 차세대와 가정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귀중한 골든타임을 그대로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도구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작은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적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물넝쿨 같이 아름답고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가실 것이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로 세상이 결단코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로 자라게 될 것이다.

온전한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의 열쇠는 주님께 달려있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에 부을 신선한 기쁨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어린이 일대일 제자양육이 온누리교회의 진정한 DNA로 자리매김하는 거룩한 기쁨부음에 대한 바람을 갖는다.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소망의 문이 되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정선희 권사(관악금천공동체)

농사 왜 짓냐고요?

농사를 짓고 싶었던 남편과 안성으로 내려온 지 벌써 4년째다. 나는 4년차 농부의 아내, 아니 농부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왜 농사를 짓냐고 질문한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 농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07년 회사 일로 '자연농업(natural faming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무농약 농사)'을 알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남편은 입버릇처럼 "이건 선교지에 꼭 필요한 건데..."라고 말하고 다녔다. 선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먹거리가 절대 부족한 선교지에 꼭 필요하며 자연농업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했다. 자연농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란 점에는 모두가 동의했지만, 선뜻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자연농법이 좋긴 하지만 자신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누군가 모델을 보여주면 해볼 수 있겠다고 했다. 남편은 그것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여긴 모양이다. 그때부터 자연농업으로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는 커녕 집안의 화분도 제대로 못 키우는 내 실력을 아는 남편이 "당신은 그냥 옆에만 있어요. 쫓나면 나무그늘 아래 예쁜 정자 하나 지어 줄 테니 거기서 당신 좋아하는 책이나 봐요"라고 말했다. 나는 단출한 짐과 책 한보따리를 싸들고 기쁜 마음으로 안성으로 내려왔다. 어떤 모양의 정자가 좋을지 상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나는 밭에만 나가면 남편보다 더 몰두했다. 자연농업의 원리를 알면 알수록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감탄스러웠다. 밭에서 화개도 참 많이

했다. 부지불식간 만물이 아니라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하고 사람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만물을 그 밭 아래 두신 하나님인데 말이다. 흙속에 널려있는 미생물들이 없으면 작물은 물론, 숲도, 나무도 황폐해진다.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질서 정연한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미물까지도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전율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 속에 넣어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장치를 엿보는 순간에는 통곡이 나왔다. 전에는 벌레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해충과 익충의 기준이 지극히 인간 중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벌레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어디 그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비유도 이제 다르게 이해한다. 예전엔 30배는 고사하고 2-3배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면서 30배, 60배, 100배는 기본이고 1000배가 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고 무지가 죄라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했다.

아주 작은 참깨 한 알이 썩을 틈이고 자라면 1,000개 이상의 참깨가 맺히지 않는가. 이렇듯 나는 농사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다. 밭은 나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되었다. 아직도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사를 왜 짓느냐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신앙에세이 이기진 목사(강남C공동체)

신학 없는 신앙 없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로마 교황청에서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결론을 내지 못하자 각자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로 유명한 신학자이자 추기경이었던 칼 라너(Karl Rahner)의 기도실에서 누군가 뛰쳐나왔다. 놀랍게도 기도실에서 나온 것은 라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 "라너의 말이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신학(神學)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신앙을 혼돈스럽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신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타당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만을 강조한다면 이것 역시 하나의 신학적 입장이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불필요성과 신앙의 충분성만을 강조하는 이른바 '신앙주의(fideism)'다. 한마디로, 신학으로부터 자유로운 신앙은 없다는 것이다. 신학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바른 신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학(Biology), 인류학(Anthropology) 등과 같은 여러 학문의 명칭과 마찬가지로 '신학(Theology)'에도 '-ology'라는 접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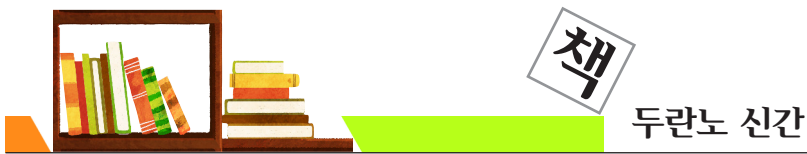
가 붙어 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첫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 1:1)"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Logos)'에서 유래되었다. 헬라어에서 '로고스'는 '말씀, 사상, 논리(Logos)'로 번역된다. 따라서 신학은 '신(헬라어 Theos) 즉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하나님 공부 바른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을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출발점은 성경적 신학이다. 성경적 신학의 출발은 종교개혁이다. 중세의 밤을 지나 개혁의 아침을 열면서 루터가 외친 한 마디는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였다. 참된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진리의 토대이며, 근원임을 믿는 것이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궁극적 계시임을 믿는 것이다. 바른 기독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구원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배격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완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궁극성을 믿는 것이 바른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한 신

학의 바른 지향점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내세지향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역사 책임적 신학을 의미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신학을 의미한다. 정의를 세우며 민주화를 이루고 전쟁을 몰아내고 평화를 세우는 신학이다. 그리고 이 신학적 기초 위에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신앙(信仰) 생활을 하는 것이다.

바른 신학은 성도와 교회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한 해석 기준이 된다. 때로는 신앙공동체의 언어와 삶을 검증하는 비판적 성찰의 도구가 된다. 무엇보다 바른 신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지도(地圖)와 같은 역할을 한다. 좋은 지도가 여행자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듯 바른 신학은 가보지 않은 시간에 대한 좋은 안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학이 빈곤하면 신앙 역시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성도들이 직업적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학 없는 신앙도 없다. 신앙의 부재(不在)가 아니라 바른 신학을 통한 바른 신앙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하용조 목사의 음성이 생생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속깊은 이성 초점〉
하용조 저 | 두란노 | 12,000원

“기도가 없다면 빛도 없고, 짙맛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의 음성이 생생하다. 이 책은 40대 하용조 목사가 깨달은 삶과 신앙을 노래했다. 하용조 목사는 빛도 사라지고, 짙맛도 사라져 가는 세상을 보면서 수많은 꿈을 꾸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글로 전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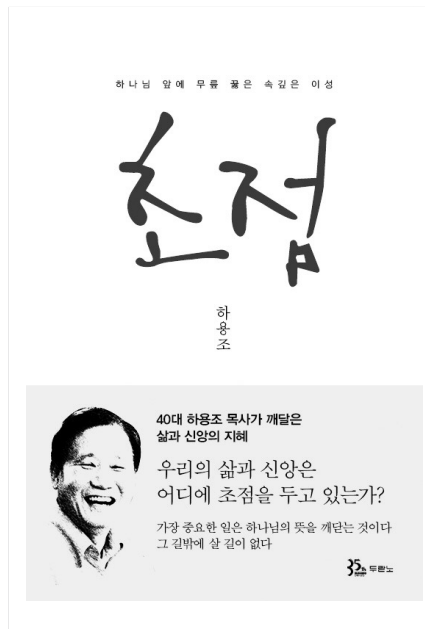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하고, 동시에 현실적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다.

이 책은 하용조 목사의 생각들을 기록했다. 그가 40대 시절 교회 안팎의 현안들에 대해서 주님의 시선으로 고민한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흘린 땀과 눈물, 무릎 꿇은 생각과 이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의 간절한 진심이 방향과 초점이 필요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전해질 것이다.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행동이 되고, 행동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따라 그 메시지가 더 그림다

〈예수님과과의 사귄〉
하용조 저 | 두란노 | 12,000원

이 책은 하용조 목사 소천 4주기 기념 도서다. 1987년 하용조 목사가 선포한 요한일서 강해 설교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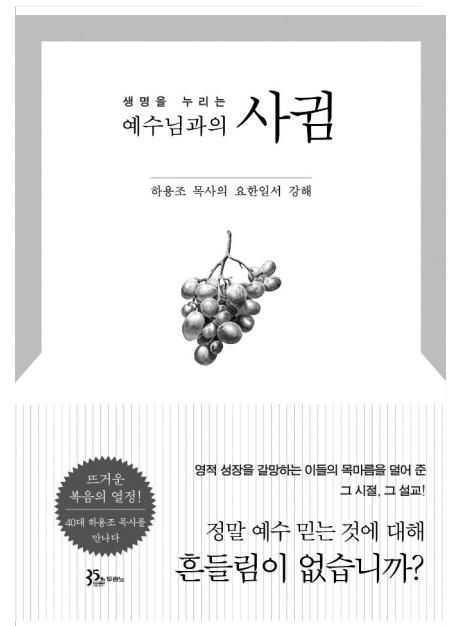
당시 한국사회는 민주화 열기로 온 나라가 술렁였다. 종교적으로는 통일교, 대순진리회 등 각종 이단문제가 심각했다. 경제적으로도 시끄러웠다.

1985년 127명으로 창립한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수가 1986년 510명에서 1989년 1,832명으로 늘어났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힘 있는 참그리스도인의 삶을 갈구하던 성도들이 말씀 앞에 모인 것이다.

이 책에는 당시 하용조 목사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있다. 성도들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소망했던 그의 패기와 확신이 설교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하 목사는 요한일서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노래했다.

빛과 사랑,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들과의 사귄을 원하신다는 메시지도 강조했다. 오늘따라 그 메시지가 더 그림다.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18 : 은금(銀金)으로 가득 찬 성전

열왕기하를 읽다보면 성전에 금은보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앗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침략하면 반드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해 갔다. 예를 들어 남 유다 왕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빼앗아 갔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아킨이 남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 금고와 왕궁 금고를 약탈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처럼 앗수르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전과 왕궁 금고에서 은과 금을 바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약탈되었다. 왕궁의 보화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는 어디서 온 것일까?

먼저 성전이 금과 은으로 치장되었기 때문이다. 역대상 22:14에 따르면 다윗은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솔로몬은 이것으로 지성소 안과 법궤의 그룹들, 그리고 성전마루와 문짝의 조각물 등을 금으로 입혔다.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 산헤립에게 굴욕을 당한 후 그가 요구한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주기 위해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주어야만 했다.

둘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세, 십일조, 기부금, 토지 수입, 서원식 비용, 전세제로부터 들어오는 현금, 환전 등을 통해 은과 금을 받아 보관했다. 성전은 각종 재물을 보관하는 ‘보고’(寶庫, treasuries)였다. 성경시대에 통용된 돈은 종이로 만든 화폐가 아니라 은화 혹은 금화였다.

성전세의 경우 하나님은 이미 광야시대부터 20세 이상 성인 남

자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반 세겔을 바쳐야 하며, 이것을 모아 회막 봉사에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다(출 30:13-15). 남 유다의 요아스 왕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전 보수를 위해 세를 내게 했다(왕하 12장). 십일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나무 열매와 같은 토지 소산의 십일조와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십일조를 바쳐야 했다(레 27:30-32; 신 14:22-23; 대하 31:4-6).

또 서원 이행은 제사를 드리거나 예물을 바치는 것이었기에 성전의 수입이 되었다. 민수기 5:5-8에 따르면 범죄한 자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갚되 오분의 일(20%)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이 때 그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돌려야 했다. 이런 것들도 성전의 수입이 되었을 것이다. 성전은 이상에서 언급한 수입원을 가지고 성전 제의 활동을 수행했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도 했다.

한편 성전은 오늘날 은행처럼 부자들의 개인 자산을 보관하는 은행 역할을 하기도 했고, 잉여 자본을 가지고 이자를 받는 대금업은 아니라도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도 했던 것 같다. 선지자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암 2:8).

여기서 전당 잡은 옷,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음을 암시한다. 이런 성전체제 지배자들, 즉 종교지도자들의 부패는 예수님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예

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선포하셨다. 그렇다고 모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 부자였던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귀족 제사장들은 부유했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대개 가난했다.

비일(Gregory K. Beale)의 〈성전신학〉에 따르면 성전의 금은보화는 별도로 가득한 하늘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 역시 각종 보석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계 21:10-11).

또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종말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하나님께 바치는 금은보화로 묘사한다(사 60:5, 9). 이런 모습은 열왕기하에서 성전이 강대국에 의해 유린되고 약탈되는 것과 대조가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 보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국가적 수치나 국부 유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을 뜻한다.

이런 치욕과 굴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성전은 아름다워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의 찬양 소리로 뒤덮여야 한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 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회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전도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3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땅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귀위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30 선교관 302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 예배 14:3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 주 수요일 오전 9:15

장소: 서빙고 누리홀/양재 화평홀/도국

온유희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국 02)570-7553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서빙고

일대일양육자반 모집

수강신청조건: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

누리등목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모두 해당되어야 수강가능)

수강신청: 아이스쿨

강미향 목사반

일시: 7.26~11.15 매 주 주일 오전 8:10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이경희(010-9966-5761)

김숙경 간사(02-3215-3220)

이한열 장로반- 성동광진공동체

일시: 8.2~11.22 매 주 주일 오전 8:10

장소: 선교관 402호

문의: 이민석(010-3157-3387)

김숙경 간사(02-3215-3220)

키비 IBS스쿨 (이스라엘성경공부)

주제: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서빙고 토요반

7/18-8/29 (토, 6주)

오전 10:15~12:30(시온홀)

*서빙고 목요반

8/6-9/10 (목, 6주)

오전 10:00~12:30(선교관 301호)

문의: 키비(02-792-7075~6)

두란노 <생명의삶> 취재 기자 모집

내용: 큐티하는 교회 취재 및 기사 작성

인원: 외주자 1명(소정의 취재비 지급)

자격요건: 큐티 5년 이상, 취재 경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지원기간: 7월 30일까지

문의 및 접수: qtlife@duranno.com

국악찬양팀 팀원모집

분야: 사물놀이, 한국무용,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등 국악 각 분야

대상: 20~40대

문의: 신현희(010-6281-9121)

온누리 남성성교 합창단원 모집

모집대상: 온누리출석교인 30~50대

연습: 매 주 화 서빙고신관 402호

19:30~21:30

문의: 양득호 총무(010-8702-2854)

안산 꿈땅 교사 모집

모집: 성경 교사(영어로 하실 분도 1분

모집), 차량 봉사(11시 예배 전)

예배시간: 11시

장소: 안산 엠센터 3층 조이홀

대상: 영유치부-초등부

문의: 민정윤(010-2997-4347)

*게시판 광고파견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본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학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 주 금요일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 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 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총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총성홀 9:00)

도국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국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국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국교육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국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국교육관 온유희(A동 2층)

고등부: 도국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국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국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국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국교육관 온유희(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국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국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국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김택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불어예배

설교: Martin Baboka(마르탱 바보카)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4336-0852,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 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21기 대학생,유학생 인투훈련학교,

46기 인투부교실 모집

일시: 21기 8.3~5(월~수, 10시~17시)

46기 8.6~8(목~토, 10시~17시)

강사: 하신주 선교사, 이태희 목사,

이인호 목사 외

대상: 21기 자아상과 영적 회복을 원하

는 (예비)대학생, 대학원생, 유학생 등

46기차세대 자녀를 두신 부모(예

비부모), 관심있으신 사역자 등

회비: 21기-7만원, 46기-11만원,

*일주일 전 등록시 1만원 할인

문의: 010-5296-0984(인투 간사/전화,

문자 접수)/www.into7.net 참조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하계 미니 세미나

일시: 8월9일~23일(3주간, 매 주 일)

11:20~12:10 예배, 12:20~13:30 강의

강사: 8/9 장순우 전문의

8/16 전진용 전문의

8/23 남윤영 전문의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부천

큐티공모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제2회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수기 공모전

일정 • 접수기간. 2015. 7. 1 (수) ~ 8. 31 (월) / 2달 간

공모영역 • 응모양식 및 분량.
수필 형식, A4용지 1~2장 내외, 수기작성 가능

응모방법 • CGNTV 홈페이지 공모전 접수페이지
• 이메일 접수 (cgnqt@cgnmail.net)
• 우편접수, 방문접수

시상계획

- 최우수상 <1명> - 아이패드 미니
- 우수상 <3명> - 외식상품권 (15만원상당)
- 입상 <5명> - 성경책 + 성경 독서대
- 큐티상 <10명> - 생명의 삶 6개월 정기구독권
- 참가상 - 볼펜 및 기념품

※ 문의. 02)3275-9518 / www.cgntv.net

글로벌 선교교육방송
CGNTV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후원안내



www.cgntv.net

영혼이 갈급한 이들에게 오아시스가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CGNTV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선교지가 행복해집니다.

• 정기후원.
http://give.cgntv.net '정기후원하기' 클릭

• 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http://give.cgntv.net '드림온 캠페인' 클릭

• 후원문의. 02-796-2243

Global!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Tv 프로그램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7/21(화) 오전 11시
해고 후 떠나게 된 1년 4개월간의 비전 트립
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준천씨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 '열방을 디자인하라'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7/24(금) 오전 11시
미국에서 일본까지 112개국을 7년 2개월 동
안 자전거로 달린 청년 문종성씨가 들려주는
'꿈의 비밀을 속삭여줄게'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7/23(목) 오전 11시 30분
유쾌하고 즐거운 모습 뒤에 숨겨진 시련, 그 가
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
가는 강성진, 이현영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able & more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간 편 성 표

7/19(주일)	7/20(월)	7/21(화)	7/22(수)	7/23(목)	7/24(금)	7/25(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상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0:30 미션 로드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노헤미야강해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 사사시대와 우리시대 16:50 매트 찬들러의 아고보서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화에 23:50 전세 프랑클린의 부흥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카일 아이들만의 제자임니까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햇빛 트리니티 성경 강좌 <골로새서> 21:40 손가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일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창조과학스쿨 -창조와 복음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마리아행전 <하나님의 소원>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놀라운 창조세계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5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40일의 감동 10:20 이재훈 목사의 비전메시지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IN2)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4 추앙재단 목회강좌 21:00 2015 예배선교 컨퍼런 스 COUNTDOWN 저녁집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구약 인물 열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11:30 미션 로드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산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맞춤특강 <나침반> 16: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9:00 2014 추앙재단 목회강좌 20:00 지구촌 반상회 22:00 청년제자프로젝트 <RUN>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